

국어의 關係節化에 대하여

이 홍 배
(육 군 사 관 학 교)

1. 최근 몇년 동안에 국어의 관계절에 대하여 많은 글이 쓰여졌으나, 그들 대부분이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을 뿐 어떤 통일된 견해를 찾고있지 못한 것 같다. 본 글의 목적은 국어의 관계절에 대한 변형생성 문법적 연구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어떤 공통된 이론을 설정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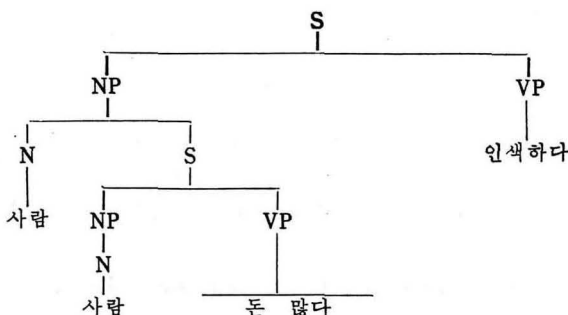
관계절에는 한정적(restrictive) 관계절과 비한정적(non-restrictive) 관계절 두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그렇듯이 국어의 경우에도 한정적 관계절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어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비한정적 관계절이 존재할 수 있으나 하는 점도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이 글도 역시 주로 국어의 한정적 관계절을 다루겠지만, 끝에 가서 비한정적 관계절에 대하여 약간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다.

2. 국어의 관계절 심층구조에 대하여 참고문헌에 있는 6~7명의 학자들이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한 분은 국응도(1968 : 이후부터 국(1968)이라고 하겠음)이다. 국(1968)은 관계절화(relativization)를 nominalization이라고 부르고 관계절을 심층구조에서 우분지(右分枝—right-branching)의 문장으로 생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의 심층구조를 (2)처럼 나타냈다.¹

(1) 돈 많은 사람이 인색하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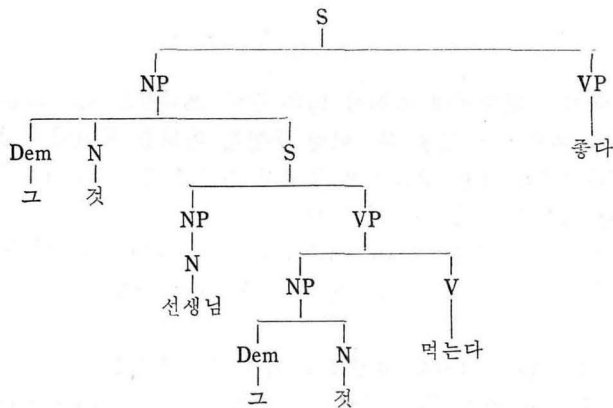
국어에서 관계절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의 좌측에 나타난다. 국(1968)은 심층구조에서

¹ 국응도(1968), pp. 138-49. 문제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층구조를 단순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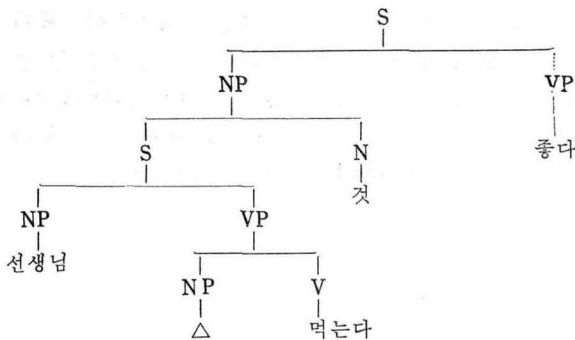
관계절을 핵심명사(head noun)의 우측에 위치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3)의 문장의 두가지 의미를 심층구조에서 다르게 나타내려면 관계절을 명사 우측에 나타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p. 110-12)

(3) 선생님이 먹는 것이 좋다.

(4) (가)



(나)



문장(3)의 두가지 뜻이 관계절을 명사뒤에 위치시켜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3)의 두가지 의미는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능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구태여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도 독자자신이 능히 알 수 있는 문제다.

둘째, 관계절을 핵심명사 뒤에 위치시키면 겹친 관계절(stacked relative clause)의 설명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표현들을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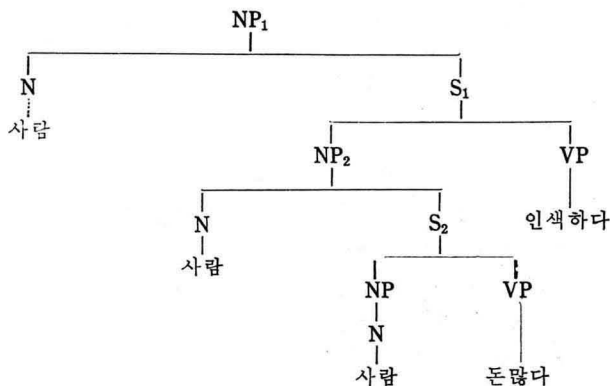
(5) (가) 인색한 돈 많은 사람

(나) 돈 많은 인색한 사람

국(1968)의 주장에 의하면 (5가)의 심층구조를 (6)처럼 나타내게 되므로 (6)에 그의 본질

한 adnominalization 규칙을 (p. 43)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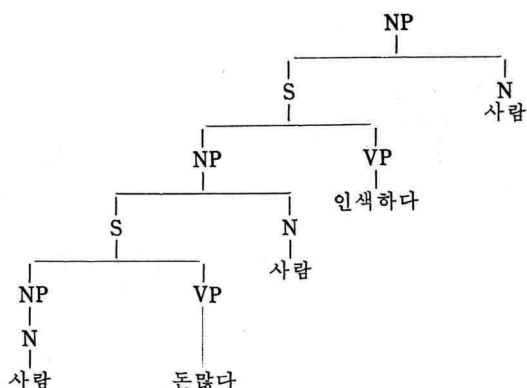
(6)



Adnominalization 규칙은 먼저 NP_2 에 적용되어 S_2 의 주어를 삭제함과 동시에 술어를 NP_2 의 직접지배를 받는 N 앞으로 이동시킨다. NP_1 에도 NP_2 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서 (5가)가 유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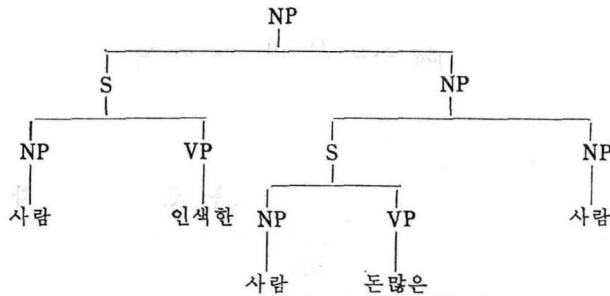
어떤 변형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심층구조를 설정하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1968)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계절을 핵심명사 앞에 위치시켰을 때 과연 (5가)의 심층구조를 (7)처럼 나타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cf. pp. 147-48)

(7)



국(1968)이 주장하듯이 (7)에는 그의 adnominalization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7)에서 (5가)의 표면구조를 유도하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5가)의 심층구조를 (8)처럼 나타내면 위의 문제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

(8)



(8)에서 (5가)를 유도하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간단할 뿐만 아니라 국(1968)이 걱정하는 내심성(endocentricity)의 유지도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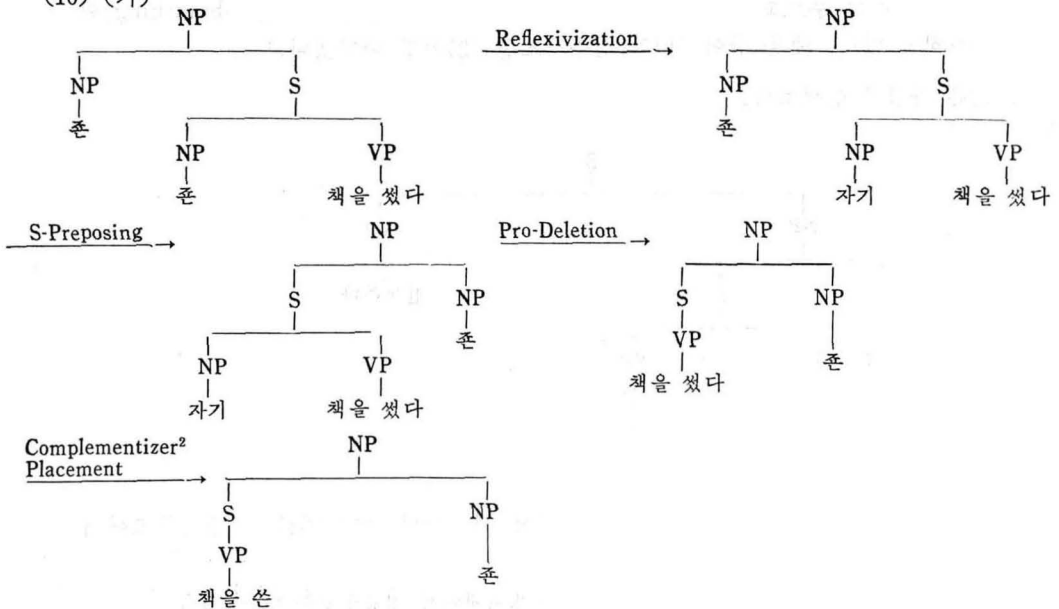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관계절을 심층구조에서 핵심명사 뒤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국(1968)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관계절이 심층구조에서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를 뒤따라 온다는 주장을 한 글에는 또한 양동휘(1975)가 있다. 양동휘(1975)는 여러가지 면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 국어의 관계절에 대한 모든 다른 주장이 핵심명사와 관계절 내의 명사간에 동일명사구 삭제(Equi-NP Deletion)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반면, 양동휘(1975)는 대명사 삭제(Pro-Deletion)라는 특유의 이론을 세우고 있다.

양동휘(1975)에 의하면 (9)의 표현을 그 심층구조에서 유도해내는 과정은 (10)과 같다. (cf. pp. 129-89)

(9) 책을 쓴 존

(10) (가)



² [NP [S 책을 썼다] 존]이 “책을 쓴 존”으로 변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필자는 (12)를 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12)가 문법적인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적합한 예문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이유는 재귀대명사화(reflexivization)의 문제로서 (14)의 문장을 생각해 보자.

(14) [[자기_i가 사랑하는] 개가 죽은] 존_i

양동휘(1975)는 (14)를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방법은 관계절을 심층구조에서 핵심명사 “존” 뒤에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필자는 국어에서 재귀대명사화가 역으로(backward) 모문장(matrix sentence)에서 내포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의 문장들을 생각해 보자.

(15) (가) [[자기_i가 저지른 잘못이]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남자_i를 괴롭혔다.

(나) [자기_i의 자식만이 상을 받았다는 것이] 존_i을 흐뭇하게 했다.

위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국어에서는 재귀대명사규칙이 역으로(재귀대명사로 대체될 명사구가 내포문장 내에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14)와 같은 문장 때문에 관계절을 핵심명사 뒤에 위치시켜야 한다면 (15)의 경우에도 재귀대명사 “자기”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을 “자기”와 상호 지시적(coreferential)인 명사구 뒤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동휘(1975)의 둘째 이유도 그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동기는 더욱더 설득력이 없다. (16가)에서 보문(complement sentence)을 주어 앞으로 이동시켜서 (16나)를 만드는 통사과정과 관계절을 명사 뒤에서 앞으로 옮기는 통사과정을 동일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6) (가) ??존이 [매리가 [툼이 시카고에 왔을 때] 그를 만났다고] 보고했다.

(나) [매리가 [툼이 시카고에 왔을 때] 그를 만났다고] 존이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양동휘(1975)의 세가지 증거는 관계절이 심층구조에서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 뒤에 와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못하고 있다.

3. 우리가 세번째로 생각해 볼 국어의 관계절에 대한 주장은 아직도 국어에는 깊이 적용되어 본 적이 없는 일본어의 관계절에 대한 Kuno의 가정이다. Kuno(1973)는 일본어에서 관계절의 핵심명사구가 되는 것은 보통 명사구가 아니라 주제조사(thematic particle)인 “wa”가 붙은 명사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Kuno, 1973: 234-60) 따라서 우리는 Kuno의 가정을 국어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국어에서 관계절화 할 수 있는 명사구는 주제조사(thematic or topic particle)인 말이 ‘는’은 명사구이다. Kuno(1973)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비조사 주제화(non-particle topicalization)이 가능한 명사구만이 관계절화 될 수 있다.³

³ 비조사 주제화는 양동휘(1975)에서 빌린 용어로써 명사구와 주제조사 사이에 다른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17) (가) 존이 그 마을에서 왔다.
 (나) 그 마을에서는 존이 왔다.
 (다) *그 마을은 존이 왔다.
 (라) *존이 온 마을
- (18) (가) 매리가 존과 공부했다.
 (나) 존과는 매리가 공부했다.
 (다) *존은 매리가 공부했다.
 (라) *매리가 공부한 존

(17)과 (18)에서 볼 수 있듯이 비조사 주제화, 즉(17다)와 (18다)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7라)와 (18라)에서 처럼 관계절화도 불가능하다.⁴

둘째, 주제화 문장과 관계절을 포함하는 문장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원래의 명사구가 있던 위치에 흔적을 남긴다.

- (19) (가) 그 아이의 선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나) 그 아이는 자기의 선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다) 자기의 선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
- (20) (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개가 죽었다.
 (나) 그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개가 죽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개가 죽은] 아이

(19)와 (20)에서 “자기”는 명사구 “그 아이”를 가리킨다.

셋째, 특정의 조건 아래서 비조사 주제화는 Ross의 복합 명사구 제약(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을 위반할 수 있는 데, 같은 조건 아래서 관계절화도 Ross의 제약을 위반할 수 있다.

- (21) (가) 그 사람이 입은 양복이 더럽다.
 (나) 그 사람은 입은 양복이 더럽다.
 (다) 입은 양복이 더러운 그 사람

(21가)의 관계절 내에 있는 명사구 “그 사람”을 (21나)에서는 주제화하였고 (21다)에서는 관계절화했다.

넷째, 어떤 주제문은 그에 대응하는 비주제문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는 관계절은 있다.

- (22) (가) *물리학에서 취직이 어렵다.
 (나) 물리학은 취직이 어렵다.
 (다) 취직이 어려운 물리학

⁴ 그의 가설에 대하여 예외가 되는 것은 Kuno(1973), pp. 244-45를 참조.

양동휘(1975)는 Kuno(1973)의 주장을 신랄히 비판하고 있지만(cf. 양 1975: 1-17)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반론이 Kuno 자신이 인정한 자기이론의 약점을 반복했을 뿐 새로운 점이 없다는 점이다. 한 가지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다음의 문장이다.

(23) (가) 자기_i의 차를 고친 존_i

(나) 자기_i의 차를 고쳤다는 존_i

양동휘(1975)는 (23가)를 사실적 관계절(factive relative clause)이라고 부르고 (23나)를 비사실적 관계절(non-factive relative clause)이라고 부른 다음,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실적 관계절에는 주제화된 명사구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으나 비사실적 관계절에는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4) (가) * $\left[\begin{smallmatrix} \text{그} \\ \text{자기}_i \end{smallmatrix} \right]$ 는 [자기_i가 자기_i의 차를 고친] 존_i

(나) [자기_i가 자기_i의 차를 고친] 존_i

(25) (가) [자기_i는 [자기_i가 자기_i의 차를 고쳤다]는] 존_i

(나) [자기_i가 자기_i의 차를 고쳤다]는 존_i

우리가 Kuno의 가정을 받아들일 경우에 (25가)의 첫 “자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26)과 같은 심층구조를 가정해야 된다는 것이 양동휘(1975: 143)의 주장이다.

(26) [존_i은 [존_i은 [존_i이 존의 차를 고쳤다]]] 존_i

그런데 문제는 (27)이 비문법적이 되기 때문에 (26)을 (25)의 심층구조를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Kuno의 가설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27) *존_i은 [자기_i는 [자기_i가 자기_i의 차를 고쳤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양동휘(1975)의 주장이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 성립될 수 없다. 과연 (25가)가 문법적인 문장인가 하는 문제다. 필자가 물어 본 사람 모두가 (25가)를 국어의 문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25가)는 Kuno의 가설을 반증하는 증거가 못된다. 가령 양동휘(1975)의 주장대로 (25가)가 문법적인 문장이라고 하자. (25가)의 “는”은 “고 말하는”이 준 것이므로 (cf. 이맹성 1968: 27-24) (27)에 이것을 보충하면 완전한 문장이 된다.

(28) 존_i은 [자기_i는 [자기_i가 자기_i의 차를 고쳤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동휘(1975)의 Kuno 가설에 대한 반증은 그 설득력이 없다.

이정민(1974)은 국어의 관계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Kuno의 가설을 받아들일 것을 암시하고 있다. (cf. 이정민 1974: 106-109) 그는 (29)는 국어에서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지만 (30)은 문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9) (가) *자기_i가 아는 여자가 그 남자_i를 죽였다.
 (나) *자기_i를 주시하던 여자가 그 남자_i를 때렸다.
 (30) (가) 자기_i가 아는 여자가 죽인 그 남자_i
 (나) 자기_i를 주시하던 여자가 때린 그 남자_i

이정민(1974)은 (30)에서 “자기”와 “그 남자”의 상호 지시성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방법은 주제화과정을 거치는 길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31)이 중간과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다.

- (31) (가) 그 남자_i는 자기_i가 아는 여자가 죽였다.
 (나) 그 남자_i는 자기_i를 주시하던 여자가 때렸다.

아직도 Kuno의 가설을 국어에 널리 적용한 논문은 없으나 이 가설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Kuno의 가설은 국어의 의문점 중의 하나, 즉 관계절내에는 주제조사(topic particle)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준다.

- (32) (가) *내가 [아버지는 잡은] 고기를 먹었다.
 (나) *순경이 [시계는 훔친] 도둑놈을 잡았다.
 (33) (가) 내가 [아버지가 잡은] 고기를 먹었다.
 (나) 순경이 [시계를 훔친] 도둑놈을 잡았다.

(32)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 것은 (34)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 (34) (가) *아버지는 고기는 잡았다.
 (나) *도둑놈은 시계는 훔쳤다.

Kuno는 일본어의 관계절을 논하면서 주제조사(topic particle)로써의 “wa”와 대조조사(contrastive particle)로써의 “wa”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Kuno 1973: 243 fn. 1) 국어에서 뿐만아니라 일본어에서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관계절을 가질 수 있는 명사구는 대조조사를 가진 명사구가 아니라 주제조사를 갖는 명사구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관계절 내에 주제조사는 나타날 수 없으나 ((32) 참조), 대조조사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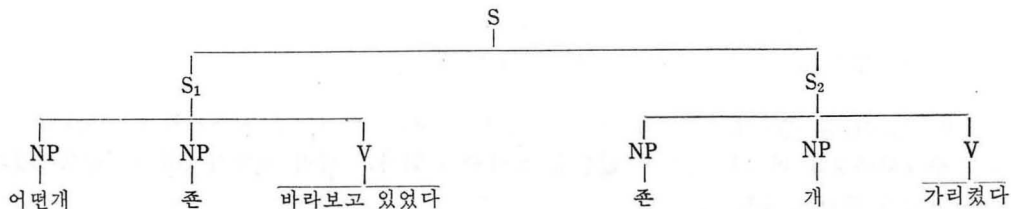
- (35) (가) 내가 [아버지는 애써서 잡은] 고기를 놓아주었다.
 (나) [너는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미워한다.

(35)의 “는”은 주제조사가 아니라 대조조사이다.

4. 국어의 한정적 관계절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한 분은 오준규(1971)이다. 그에 의하면 관계절은 내포된 문장(embedded sentence)에서 유도된 것이 아니라 접속문(conjoined sentence)에서 유도된다. 예를 들어 (36)의 문장은 (37)과 같은 심층구조를 갖는다. (pp. 82-84)

(36) 존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개를 가리켰다.

(37)



오준규(1971)가 제시한 국어의 한정적 관계절 규칙은 다음과 같다.

Korean RESTRICTIVE-RELATIVE-CLAUSE FORMATION

$(W, NP_i, X)_{\text{intro-S}} \cdot (Y, NP_i,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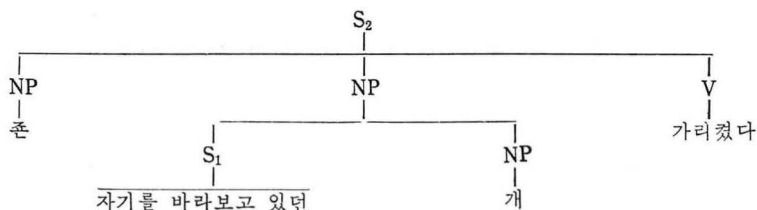
1 2 3 4 5 6

A. $\rightarrow (1, 2, 3) \cdot (4, (1, 3 + \text{REL})_s \# 5, 6)$

B. $\rightarrow (4, (1, 3 + \text{REL})_s \# 5, 6)$

(37)에서 (36)을 생성하는 규칙은 B로서 (37)을 (38)로 변형시킨다.

(38)



이에 반하여 (37)에 A를 적용하면 (39)의 문장들이 유도된다.

(39) (가) 어떤 개가 존을 바라보고 있다. 존은 그 개를 가리켰다.

(나) 어떤 개가 존을 바라보고 있다. . . 존은 자기를 바라보던 개를 가리켰다.

오준규(1971)에 따르면 (39나)가 사용되는 여건은 두 접속소(conjunct)의 간격이 너무 떨어져서 청자가 첫 접속소를 기억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화자가 가정할 때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계절이 “그”로 대체된다. 이점은 매우 새로운 제안으로서 앞으로 깊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의 두 문장을 같은 심층구조에서 유도해냈다는 점이다.

(40) (가) John pointed to the dog which was looking at him.

(나) John pointed to a dog which was looking at him.

(41가)를 어떻게 생성해낼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41나)는 위규칙의 B를 써서 생성해야 된다고(오 1971: 84-85) 주장한 것으로 보아 (41가)는 A를 써서 생성할 수 밖에 없다.

(41) (가) 어제 나는 언젠가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사공을 만났다.

(나) 어제 나는 언젠가 나를 죽이려고 한 (한) 사공을 만났다.

Thompson(1971)에 따르면 (40가)와 같은 문장은 'there is a dog such that it is known by the hearer that it looked at John'라고 화자가 가정(presuppose) 할 때 가능하며, (40나)는 청자가 '어떤 개가 존을 바라보았다'는 사실과 또한 '존이 그 개를 가리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화자가 가정할 때 가능하다. (cf. Thompson 1971: 81) 따라서 이들은 심층구조 면에서 다르게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국어에 비한정적(non-restrictive) 관계절이 존재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르다. 양인석(1972)은 국어의 비한정적 관계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both English and Korean can represent the semantic distinction of restrictive and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s, but on the surface the English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 corresponds to a type of conjunction in Korean (p. 226)

예를 들어 영어문장 (42)에 대응하는 국어문장은 (43)중에 어느 하나가 된다.

(42) I bought a vacuum cleaner, which is out of order.

(43) (가) 내가 진공청소기를 샀다. 그런데 그 진공청소기가 고장났다.

(나) 내가 진공청소기를 샀는데 그 진공청소기가 고장났다.

이에 반하여 오준규(1971)는 비한정적 관계절이 국어에 있다고 주장한다. (cf. pp. 87-95)

(44)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그 사람은 통역관이 되었다.

(44)의 심층구조와 비한정적 관계절 규칙에 대하여는 오준규(1971)을 보아주기 바란다. 그는 국어에서 핵심명사가 “그”를 가지면 이를 수식하는 관계절은 비한정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삽입하는 과정으로 볼 때 이러한 가정을 암암리에 품고 있다.

만약 Ziv and Cole(1974)의 주장대로(pp. 772-86) 한정적 관계절의 기능이 ‘식별하는 것’(identifying)이라고 할 때, (44)의 관계절이 이것이 수식하는 “그 사람”을 식별해주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44)는 두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관계절이 한정적으로 쓰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비한정적으로 쓰인 경우이다. 만약 청자가 어떤 사람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화자가 그 청자에게 그 사람이 통역관이 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말하고 싶을 때 (44)를 쓸 수 없느냐? 필자는 쓸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는 관계절이 식별적으로 쓰인 예이다. 또한

(44)문장은 이런 경우에도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정해진(definite)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 화자가 청자에게 그 사람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알 뿐만아니라 통역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을 경우에 (44)를 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계절이 비한정적으로 쓰인 예이다.

따라서 필자는 국어에도 비한정적 관계절이 있으며,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은 비한정적이라고 생각한다.

(45) 일년에 열권씩 책을 쓰는 홍길동은 나의 동생이다.

의미적으로(semanticly) (따라서 통사적으로(syntactically)) (45)의 관계절을 비한정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고유명사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이미 화자에게 알려져 있을 때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길동”이 누구를 가리키는 지를 청자가 모른다고 화자가 생각할 때 “홍길동”이란 말을 쓸 수는 없다.

6.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의 관계절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검토해 보았다. 양동휘(1975)의 NP[NP S]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국어에서 관계절이 수식받는 명사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극히 당연한 사실을 계속 받아들이 수 밖에 없다. 특히 Kuno(1973)의 일본어 관계절에 대한 가설, 즉 관계절화 될 수 있는 명사구는 주제화된 명사구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어에 깊이 적용시켜 볼 가치가 있다. 또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어에서도 한정적 관계절과 비한정적 관계절을 구별시킬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국응도. 1968. Embedding Transformations in Korean. University of Alberta Doctoral Dissertation.
- 양동휘. 1975. Topicalization and Relativization in Korean. 서울: 범한서적주식회사.
- 양인석. 1972. Korean Syntax. 서울: 백합사.
- 오준규. 1971. Aspects of Korean Syntax. 서울: 범한서적주식회사.
- 이맹성. 1968. Nominalizations in Korean. 어학연구, 제IV권, 제1호(별권).
- 이정노. 1974. Topics in Korean Syntax with Notes to Japanese.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정민. 1974.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서울: 범한서적주식회사.
- Kuno, Susumu.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Thompson, S. Annear. 1971. The deep structure of relative clauses. In C. J. Fillmore and D. T. Langendoen(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p. 78-94.
- Ziv, Yael and Peter Cole. 1974. Relative extraposition and the scope of definite descriptions in Hebrew and English. In Papers from the Ten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772-86.